

글로벌 시황 브리핑: 미·이란 휴전과 안도 랠리의 역학

지정학적 해빙이 글로벌 자산군 수급에 미친 파급효과 분석

발간일

2026.04.09

보고서 유형

미국장/글로벌 브리핑

터미널 ID

MACRO-0409





지정학적 리스크 증발

유가 -19%

미·이란 2주 조건부 휴전 타결

WTI 배럴당 100달러 하회

안전자산 쏠림 현상 일시적 해제



KOSPI 폭등장 연출

+6.87%

코스피 5,872.34 (올해 최대폭 상승)

코스피·코스닥 동반 사이드카 발동

외국인·기관 5조 원 규모 순매수



디커플링과 다음 허들

S&P 500 +0.00%

미국 증시 관망세 및 횡보

서학개미 4월 순매도 전환

CPI 및 한은 금리 결정 등
물가 지표 대기

거시적 트리거: 지정학적 해빙이 촉발한 나비효과



전 세계로 번진 안도 랠리: 동기화된 위험 선호 현상



파국은 피했다... 전쟁 끝이 보이며 빠르게 제자리 되찾는 글로벌 증시

국내 증시 포커스: 역사적 폭등장

KOSPI

5,872.34

▲ +377.56pt (+6.87%)

KOSDAQ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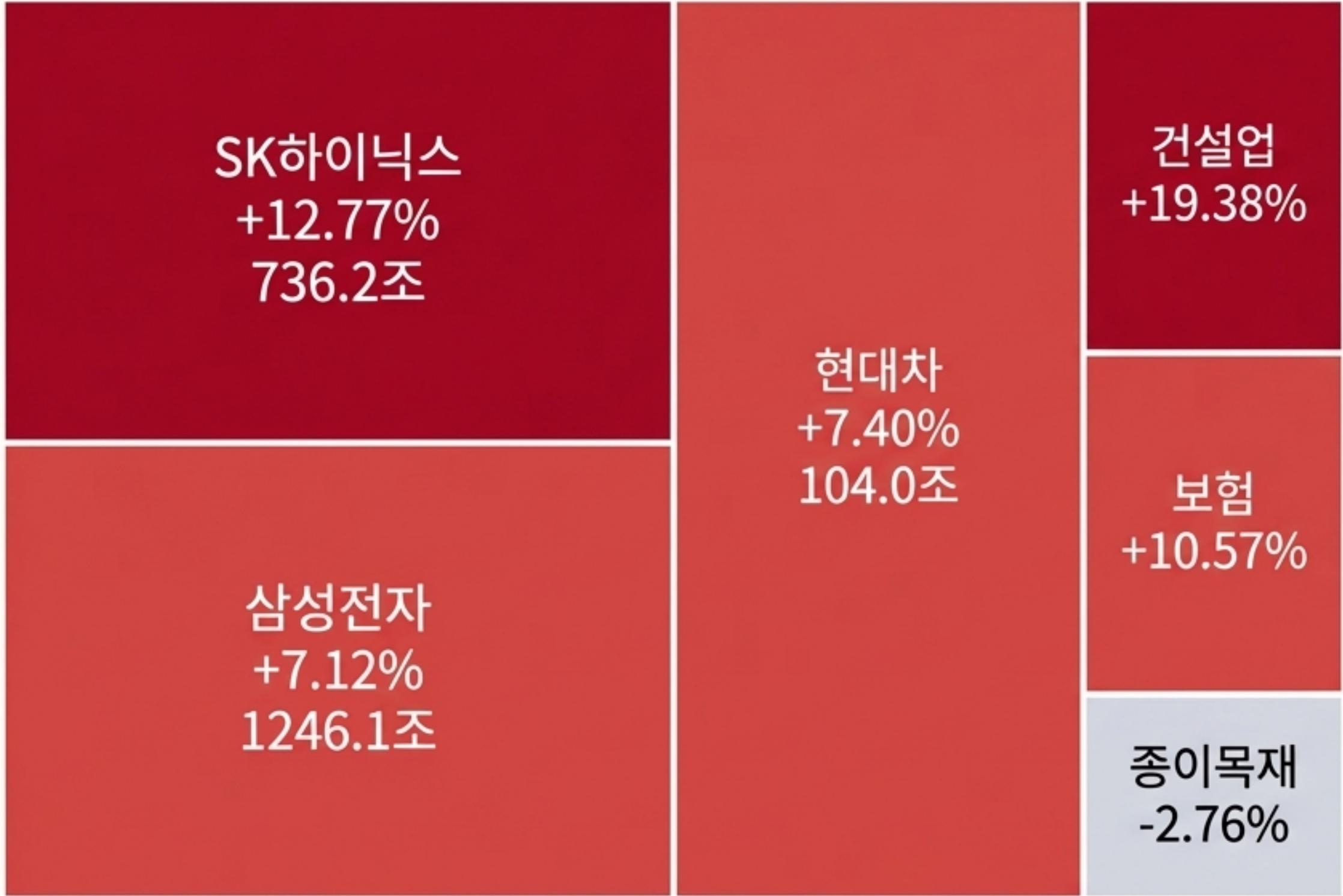
1,089.85

▲ +53.12pt (+5.12%)

MARKET ALERT 동반 사이드카 발동

올해 최대 일일 상승세 기록.
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와
반도체·건설 섹터 견인으로
5,900선 돌파를 목전에 둠.
휴전 지속 시 단기 상승
모멘텀 유지 가능성 농후.

KOSPI 견인 주도주 및 섹터 분석



핵심 인사이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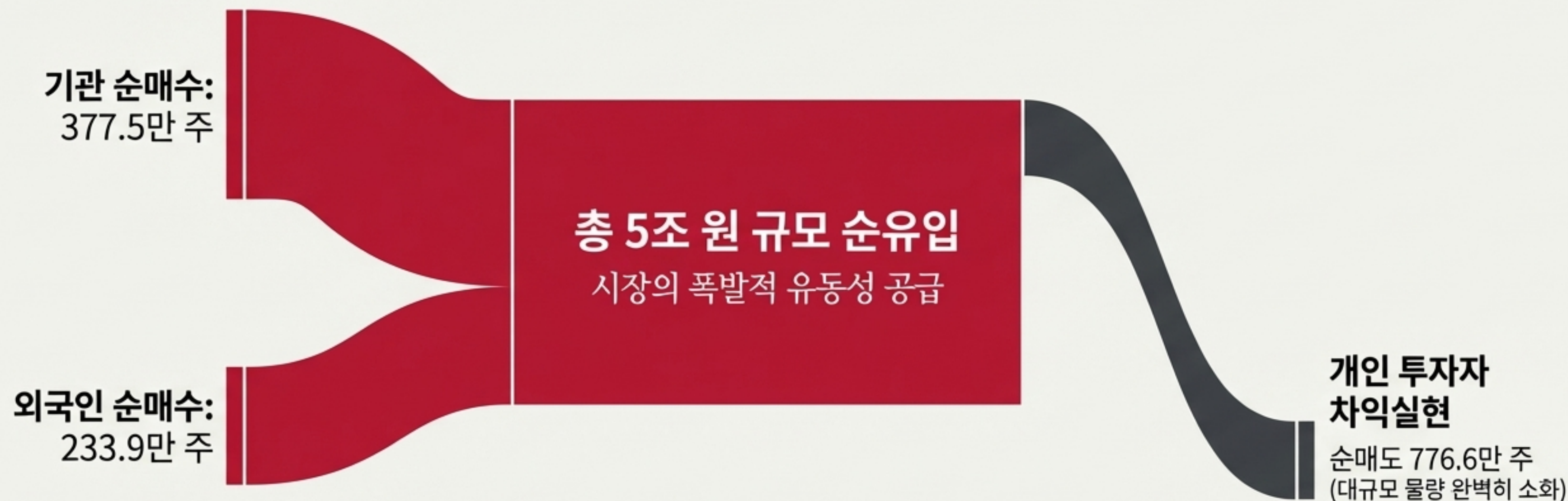
1. 주도 섹터

건설업(1주간 +25.28% 급등) 및 보험 섹터가 압도적 상승 주도.

2. 메가캡의 귀환

‘100만닉스’ 탈환 (1,033,000원). SK하이닉스 단일 종목이 KOSPI 상승분의 핵심 엔진 역할 수행.

수급 블랙홀: 스마트머니의 귀환과 차익실현



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며
개인의 차익실현 매물을 압도적으로 흡수함.

나홀로 횡보한 미국 증시: 시장 반응 디커플링 원인 진단

비교 차원	한국 증시 (KOSPI)	미국 증시 (S&P 500 / NASDAQ)
지수 반응	폭등장 연출 (+6.87%)	제자리 횡보 (S&P 500 +0.00%, NASDAQ +0.10%)
수급 주체	외국인·기관 5조 원 융단폭격 매수	서학개미 4월 순매도 전환 및 차익실현
시장 심리	신흥국(제조/수출 중심) 디스카운트 급격히 해소	미국 주식 고평가 부담 및 ‘재미없다’는 여론 팽배
향후 동력	휴전 지속 시 강한 상승 모멘텀 유지 가능성	CPI 결과 대기 및 침체된 수급으로 상승 지속 불투명

FICC 다이얼 대시보드: 다방향 시그널의 교차

채권	환율	원자재	안전자산	대체자산
				
미 국채 10Y: 4.262% (+5bp) 매파적 FOMC 기조로 금리 상승	달러인덱스: 0.5 (-0.32) 유로 강세로 인한 달러 약세	WTI 원유: \$95.88 (+\$2.62) 100달러 하회 후 감산 기대로 단기 변동성 지속	금 (XAU): \$103,000 (+\$18) 구조적 안전자산 선호 잔존	비트코인: \$13,000대 근접 (+\$1,240) ETF 순유입과 위험 선호 회복

핵심 인사이트: 금리 상승 속 달러 약세라는 이례적 환경 속에서, 원유 변동성과 안전자산(금) 및 위험자산(코인)이 동반 상승하는 과도기적 국면.

안도 랠리 이후의 시험대: 주목해야 할 주간 매크로 레이더

4/9 (오늘)

미국 FOMC 의사록 &
근원 PCE 물가지수 발표

휴전 랠리의 첫 번째
인플레이션 검증대

4/10 (내일)

한국은행 금리 결정
(현재 2.50%)

미국 3월 CPI
(소비자물가지수) 발표
(예측 3.4%)

핵심 변동성 구간 진입

4/14 ~ 4/15

미국 3월 PPI
(생산자물가지수) 발표

JPM(JPMorgan) 실적 발표
SK하이닉스 1분기 실적 발표
(예상)

**지정학적 리스크 해소가 쏠아올린 단기 축포.
이제 시장의 시선은 펀더멘털과 인플레이션의
현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**

상승 모멘텀 지속 여부

KOSPI 5,900선 돌파 기대감은
외국인 5조 원 유입으로 입증되었으나,
미국 시장의 횡보(디커플링)는
글로벌 전면적 강세장 확산에
신중론을 제기합니다.

인플레이션 관전 포인트

유가 급락은 물가 방어에 긍정적이나,
미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(4.262%)과
다가오는 핵심 물가 지표(CPI, PPI)
결과가 시장 방향성의 진정한
척도가 될 것입니다.